

10조원 규모 군산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탄력

'적합부지 발굴 공모' 선정...2027년까지 최대 2GW급 건설

내년 착공 앞둔 새만금 태양광발전과 지역경제 시너지 기대

군산시가 추진하는 10조원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7일 군산시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 주도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 공모사업'에 군산시가 선정돼 국비 35억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해양 생태와 지질, 어업 활동 현황 등을 조사해 해상풍력 사업의 최적지를 찾는 것이다. 군산시가 해상풍력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군산 어청도 일대를 대상으로 해 내년부터 2년간 조사 작업을

이 진행한다. 조사는 지역 해역에 풍황계측기 2-3기를 설치해 어업 영향이 적으면서 해상풍력 사업의 적합한 부지를 발굴하게 된다. 군산시는 최적지를 찾아내면 2027년까지 10조원 가량을 투입해 최대 2GW(기가와트)급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공공 주도의 해상풍력 공모사업에 선정된 군산시는 내년 착공을 앞둔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과 함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까지 순환

을 예고하면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우리가 역점을 뒀던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세계 5대 해상풍력 국가로의 성장 등 정부 해상풍력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군산=박금식 기자 nogusu@kwangju.co.kr



미스춘향 진 신슬기씨 수해민에 마스크 2만매

남원시는 올해 춘향선발대회에서 미스춘향 진에 뽑힌 신슬기(23)씨가 마스크 2만장매를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신씨는 "춘향선발대회 기간에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 모습을 보고 마스크를 기부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춘향제 행사의 하나로 지난 10일 남원에서 열린 춘향선발대회에서 미스춘향 진에 선정됐다. 이완주 남원시장은 "코로나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고마워했다. 이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 경찰서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온정을 나눴다. 이 시장은 지난 23일부터 장애인시설인 '행복의 집' 방문을 시작으로 '행복의 집', '효성의 집' 등 복지시설 16곳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어 군부대인 103연대와 3대대, 남원경찰서를 방문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시민의 안전과 향토방위, 대민 자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경을 격려하고 위문품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만인의사 호국정신 기려 남원시 '순의제향' 거행

문화재청은 지난 26일 남원시 만인의사에서 만인의사(萬人義士)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순의제향'(殉義祭享) 행사를 거행했다. (사진) 행사는 초헌관이 향을 피우고 술잔을 올리는 초헌례와 축문 낭독, 아헌관이 술잔을 올리는 아헌례, 종헌관이 술잔을 올리는 종헌례, 대통령을 대행한 문화재청장의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순의제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화재청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의사 후손 등 최소인원만 초청해 소규모로 열렸다. 만인의사(사적 제272호)는 정유재란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남원성 전투에서 5만6000여명의 왜적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1만여 의사를 모신 곳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옥정호 전망 전원마을 조성... 농촌활력 기대

33억원 투입 장금지구 개발

정읍시가 수려한 경관의 옥정호 전망이 일품인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 중이다. 정읍시는 산내면 장금지리 일원에 국비 등 총 사업비 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장금지구 신규마을'의 택지조성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신규마을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 사업이다.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해 도시민을 유치함으로써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다. 마을정비 기본 및 시행계획에 따른 마을정비 구역 지정과 기반시설 정비 절차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착공했으며 시유지 2만4975㎡(주택용지 1만3㎡, 공공시설용지 5510㎡, 녹지용지 9462㎡) 규모로 20필지의 택지가 조성됐다. 정읍시는 지난 2014년 공모사업 당시 모집된 기

존 입주예정자 20인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공고했고, 최종 분양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인별 전원주택 건축에 나설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장금지구 신규마을은 섬진강 옥정호에 위치해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생활 여건이 우수해 도시민들의 호응이 컸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농촌 주거공간을 조성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노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개·보수

사업비 40억 투입

고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1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노후 유통시설을 보수하고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고창군은 국비 등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저온저장고 등 후시설 개·보수와 GAP시설(농산물우수관리제도) 보완, 현대화 선별시설을 구축한다. 또 기간 농산물 상품화 과정에서 부족한 물류기기와 장비를 추가 구입해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달 농식품부의 공모사업 서면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2021년도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의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



번에 최종 확정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로 노후화된 유통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해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요구에 부응하는 농산물 상품화로 생산농가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국가예산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황숙주 순창군수 "수해 복구 특별교부세 지원해달라"

7개 시·군 대표로 정부에 요청

순창군은 황숙주 군수가 지난 8월 폭우와 섬진강 댐 방류로 수해를 당한 7개 시군을 대표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수해 시·군은 전북 순창·남원·임실, 전남 구례·광양·곡성, 경남 하동 등이다. 황 군수는 행안부 관계자에게 농지와 소규모 시설의 복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치단체들에 특별교부세 6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복구비 외에 소규모 농지, 농로 유실, 용배수로 복구비가 지원되지 않아 많은 농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한다"고 강조했다. 섬진강권 7개 시군은 정치권, 중앙부처, 감사원 등에 지난 8월 폭우 때 섬진강댐 방류에 의한 수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